

되살아나는 벽초의 삶과 문학

제1회 '홍명희 문학제' ... 생가 방문·드라마 시사회 등 진행

제1회 홍명희 문학제가 지난 11월 2일 충북 청주에서 열렸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지회장 권희돈)와 세계절출판사(대표 강갑실)의 공동주최 아래 오전에는 벽초 홍명희 생가 방문, 오후에는 문학제 본행사가 다채롭게 치러졌다.

새롭게 밝혀진 '인산리' 생가

강영주 교수(상명대·국문학)와 충북 민예총 관계자들의 안내로 진행된 생가방문은 명지대 문예창작과 답사팀을 비롯, 200여명이 참가했다. 생가방문단이 먼저 발길을 돌린 곳은 강영주 교수에 의해 벽초의 생가로 밝혀진 괴산군 괴산면 인산리(현 동부리)에 있는 고가(古家).

강교수는 벽초의 장남 흥기문의 수필 <고원(故園)기행>을 근거로 이 곳을 찾아냈다. 아흔 아홉칸짜리 사대부가의 흔적으로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고, 벽초의 생가라는 자취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은 이복기(84) 옹의 소유인데, 89년까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상태다. 1천평의 대지가 10억을 호가하는 터라 아파트단지라도 들어서기 전에 보존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벽초는 괴산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하지만 생가 근처에 있는 '3·1만세운동 유적비'에 벽초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문학제 본행사는 500여명의 시민·학생·문인들이 청주 예

제1회 홍명희 문학제는 시종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가 보존과 기념관 건립 등 벽초의 높은 문학을 기리는 계기가 될 이번 문학제는 학술적 논의에 국한했던 그의 문학에 대한 대중행사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술의 전당 소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종 열기가 가득했다. 도종환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본행사는 <벽초 홍명희와 '임격정'의 연구자료> 출판기념회, 벽초의 발자취를 좇는 슬라이드 강의, 문학 심포지움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판기념회에서 문학제를 주관한 민예총 충북지회장 권희돈 교수(청주대)는 인사말을 통해 "홍명희 선생이 태어난 곳에서 문학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오늘은 선생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의장 백낙청 교수(서울대)도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벽초 또는 <임격정>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이제는 "공개적·집단적·체계적으로 해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가족대표로 연단에 선 조규은(84) 여사는 간혹 목이 메이는 말로 벽초의 인품을 회상



새롭게 밝혀진 충북 괴산군 인산리 생가.

했다. 벽초는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은 정확하되 결정은 못내리는 성격"이었다고 회고.

벽초 문학의 부활

강영주 교수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한 슬라이드 강의를 벽초의 인간적 면모를 눈으로 확인하고, 와전된 사실을 바로잡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남양(싱가포르)에서 활동할 때 찍은 사진은 개명된 신사의 모습 그대로이고, 연재 중단을 알리는 신문의 사고는 <임격정>이 옥중에서 씌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벽초가 신간회 민중대회 사건으로 잡혀들어갔을 때 집필한 장소는 감옥이 아니라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이었다. 집필한 분량도 신문연재 2회분에 불과하다.

마지막 행사로 서울방송이 만든 드라마

'임격정' 특별시사회가 열렸다. 36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벽초와 <임격정>을 부활시키는 추진력이 될 듯하다.

강영주 교수는 "벽초선생의 사실상의 복권"으로 문학제를 결산하며 '감격스런 감회'를 숨기지 않았다. "선생을 흠모하는 <임격정>의 열성팬들이 모인 자리였다. 생가 보존과 기념관 건립 등 벽초의 높은 문학을 기리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제1회 홍명희 문학제는 출판계의 역량에 과시한 행사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문학제의 기획에서 원활한 행사 진행까지 무리없이 이뤄낸 사계절의 강갑실 대표는 "학술적 논의에 국한했던 홍명희 선생과 그의 문학에 대한 첫번째 대중행사"라는 데 의의를 부여했다. —최성일 기자

한양아트콤!!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 대형 드럼스캐너에 의한 고해상도 원고 입력 서비스 최신행 출력기에 의한 빠른 분판film 출력서비스로 사용자 여러분들을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희 한양아트콤에서는 최신행 기계와 최고의 기술로 고품질의 입·출력 서비스를 24시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양아트콤!
전화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 원색 분판 출력
- 원색 스캔 입력
- CD 입력
- 이미지 합성 리터칭

한양아트콤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96-16
TEL : (02)275-6226 (대표)
FAX : (02)268-6972